

함께 갑시다, 새 예루살렘까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행된 사랑과 섬김의 행사,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해외 목회자들의 우리 교회 방문 등 국내외 소식.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 하계수련회는 해외 곳곳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영광 돌리고 있다.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줄으신 하나님”

만민을 만나 신앙의 궁극점을 해결받은 몰도바 크리스티나 니꼬라 자매와 퇴행성관절염의 통증이 사라져 걷게 된 조영월 권사 간증.

# 만민뉴스

제839호 2018년 5월 2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과 감사”

### 2018 어린이주일 기념예배 및 어버이주일 행사 열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주일 기념예배 및 어버이주일 행사를 가졌다.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아동주일학교에서는 지난 5월 6일 오후 1시 30분, 2성전에서 어린이주일 기념예배를 드렸다. 임윤정 어린이(5학년)의 사회로 대표기도는 전세은 어린이(6학년), 성경봉독은 심사랑 어린이(6학년)가 담당했으며, 만민어린이합창단의 은혜로운 특송이 이어졌다.

감사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는 ‘우리는 아버지 열매’(요 15:5)라는 말씀으로 “짜증, 미움, 거짓 등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사랑, 용서, 기쁨, 찬양 등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기”를 당부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주일 대예배 후 본당에서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을 모신 가운데 권사회연합회에서 준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감사 이희선 목사(남·여선교회 총지도교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 선지자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전했다.

그 뒤 예능위원회 소속인 권능팀(반주: 드림반주단)이 태권무, 워십댄스에 이어 천국 소망을 더해주는 찬양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 김쌍금 권사(72)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매년 어버이주일 행사를 통해 마음이 충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행사 후에는 맛있는 떡과 음료가 제공되었다.



#### 권능을 목도해 우리 교회 찾은 해외 목회자들



당 회관을 관람하였다. 인도 메리스톤 데이빗 스캐니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인도 연합대성회는 인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으며,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프라부 발라고팔 전도사는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권능의 사역, 왕성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설교와 성가에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향후 이들은 따르는 표적과 기사, 권능의 역사로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했다.

서적에 은혜받은 해외 목회자들이 지난 5월 13일 주일,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권능CD를 통해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를 시청한 뒤 감동이 되어 이 목사의 신앙 서적도 읽게 되었으며, 그 뒤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날 주일 대예배를 드린 뒤에는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권능의 무안단물 수족

#### 구제위원회, 장학금 전달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저녁예배 시 ‘2/4분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는데, 대상자는 초등

학생 10명,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21명 총 56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대학생에게는 1년에 두 차례 지원하고 있다.

####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2018 여름성경학교’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 첸나이만민교회에서는 ‘2018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담임 한정희 목사가 ‘천국의 초청장’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분량, 천국의 처소, 영의 세계에 관해 전하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천국의 소망을 더해주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다.



#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 12:18~20)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주의 종, 장로, 권사, 교사, 성가대 등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하심입니다(엡 4:12). 이때 각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지요.

1982년 교회 개척 이후 만민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였기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민’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첫째로, 주 안에서 한 목자 곧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좇아 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2절에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만민은 우리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왔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왔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지요.



교회 개척 전, 저는 목회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이받기 위해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정녕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지요. 7년여의 기도가 쌓이자 주님께서는 성경을 풀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곧 <믿음의 분량>(롬 12:3)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1단계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수준인 믿음의 5단계까지의 성장 과정

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마음에서 악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엡 4:13)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참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좇는 성도는 나이, 성별,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 GCN방송을 통해 무수한 영혼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성결’이 삶의 최대 목표요, 가치로 여기는 영혼들이 세계 도처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동유럽에 있는 몰도바에서는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형제가 유튜브와 TBN러시

아 방송을 통해 저의 ‘지옥’ 설교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아 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가 날로 더해져 2014년 4월부터는 성전을 마련해 예배드리기 시작했지요.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아닌데 이 제단에서 선포한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만민의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었기에 품은 소망도 본 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어찌하든 믿음의 성장을 신속히 이뤄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열매는 참으로 실하고 풍성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지요. 저는 7년 동안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길에서 성경을 들고 가는 사람만 보아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었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부유함이나 배움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주를 믿는 영혼들을 하나 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영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기를 즐겨하며, 물질뿐 아니라 저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일과 영혼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요. 2010년부터는 영혼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한 공의를 대신 채우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골수에서 진액이 빠져나감으로서 있는 것조차 벽차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 죄를 지을까, 성경되기 힘들다 하여 낙심할까 하

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영의 세계를 더 밝히 알려 주려 했고, 더 큰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보여 주어 믿음을 키워 주고자 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 하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눈에 본 듯이 만진 듯이 체험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권능에 담긴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닮고자 힘쓰며 천국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시고 병어리로 말하게 하시며 불구자로 건전케 하시고 절뎛발리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요 11:4).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으므로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된 사람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지요(요 9:32-33).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시 62:11) 누군가가 권능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욱이 권능을 행하는 사람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하지요. 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권능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최고 단계인 재창조

의 권능 100%를 완성하기 위해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영의 훈련 과정을 고스란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의 치료는 물론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하계수련회 때에는 특별히 귀신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수십 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렸습니다.

수련회 직전에는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이던 제5호 태풍 ‘노루’가 수련회 첫날인 8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8월 3일, 태풍이 소멸되거나 진로가 바뀌도록 기도하자 태풍은 당초 예상한 진로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수련회 장소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됐지요. 다음 날인 4일에는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운항 사업을 하는 성도의 요청으로 한 차례 더 기도하게 되었고, 태풍은 한반도에서 100킬로나 더 멀어져 동해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수련회에 참석하러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자 태풍은 그 세력이 약화되어 성도들이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지요.

2016년 하계수련회부터는 권능으로 기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8월 초에도 25~26도의 쾌적한 날씨 속에 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통해 우리 만민에게 보내 주신 잠자리가 친근하게 몸에 와서 앞으로 매년 더욱 행복한 한여름의 추억을 만들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기를 사모하니 우리는 더욱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고, 그보다 큰 권능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라고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주의 종과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매로 모든 주의 종과 일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신앙의 궁금증을 해결받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졌어요”

크리스티나 니꼬라 자매 (26세, 몰도바만민교회)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의 궁금 증들이 해결되지 않아 회의에 빠졌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주일이 되면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나?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가?’ 등 그 답을 찾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습관적인 일상의 반복이었고, 노래가 좋아서 찬양팀 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다였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카페에 가서 찬양팀 단원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등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심일조 생활도 안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하고 다른 교회도 다녀 보았고, 인터넷으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도 찾아 들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 2월, 복통이 심해 병원에 가 보니 난소 낭종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몰도바만민교회에 다니고 있었기에 곧바로 한국의 만민중앙교회로 기도 요청 서신을 보냈지요. 하지만 수술 날짜가 바로 그다음 날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는 낭종이 매우 큰 데다 수술을 해도 난소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매우 빨랐을 뿐 아니라 난소 기능이 100%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저는 몰도바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간 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답답한 제 마음에 아주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지요. 화상을 통해 듣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이해되었으며, 제가 그토록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던 많은 질문이 그대로 해결되었지요.

2015년 6월, 저는 만민의 양 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대로 열심히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니 천국 소망도 생겼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심일조 생활도 시작하였지요.

2017년 초에는 제 마음이 더욱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8도 까지 오르는 고열로 온몸이 떨리는가 하면, 어느 날은 얼굴과 목이 붓고 눈이 충혈되며 알레르기 증상까지 나타났지요. ‘질병은 죄로 인해 온다’(출 15:26)는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였습니다. 그 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출 15:25)을 마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권능의 기도를 받은 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조영월 권사 (83세, 서산만민교회)



저는 오래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망가져 인공관절을 삽입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가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는 것을 보았기에 저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싶었지요.

5분 정도만 걸어도 무릎이 옥신옥신하고 쿡쿡 쑤셔서 잠시 쉬어야 했고, 밤에도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릎을 하면 무릎이 부어 올랐으며, 특히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무릎에서 뼈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잘 펴지지 않아 한참을 주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면 통증이 잦아들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던 올해 3월 초, 부주의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한 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한 발자국도 뻘 수 없었기에 누워서만 지냈고, 화장실을 갈 때는 휠체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X-Ray 촬영



▲ 양쪽 무릎관절에 연골이 마모되어 관절 간격이 좁은 조영월 권사 무릎. ▲ 연골이 마모되지 않아 정상적인 관절 간격을 보이는 정상인의 무릎.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의 성화로 병원에 가 보았으나 수술해도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지요. 고통 속에 지내던 저는 3월 24일 토요일 아침, 당회장님을 뵈면 낫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탁하여 다음 날인 25일 주일 아침, 서울 본 교회에서 진행되는 당회장님과 성도들의 만남에 참석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계단에서는 아들 등에 업혀 성전에 도착하였지요.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 앞자리에 가서 앉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전체를 위해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지더니 온몸이 매우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섰지요. 저희 가족도,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예배 후, 당회장님께 직접 기도를 받을 때에는 다리에 더욱 힘이 생겨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그때 제 입에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 혼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밤잠도 푹 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선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사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